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 만든다

남원시, 291억8800만원 사업비 투입해 하천정비·가족단위 체험형 친수공간 조성키로

남원시가 292억원의 사업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만들기를 추진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국가하천 9억 5천만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196억1천4백만원, 하천유지관리 28억2천4백만원,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조성 사업으로 58억원 등 총 291억8800만원을 투입,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하천정비와 요천 고수부지 내 가족단위 체험형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재방과 수문 등 노후 되고 개량이 필요

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하천을 대폭 정비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는 '일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통해서도 신촌동 요천 합류부~추천면 고기리 13.7km구간에 산책로, 휴게쉼터, 자전거 도로(6.62km) 개설 등 일천천 하천 내 친수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힐링·휴양·레저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 상반기에 하천 우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잡목제거 사업과 하천 내

퇴적된 토사와 부유물질로 인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하천에 대해서도 준설작업을 추진,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진영신 건설과장은 "시는 현재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40개소, 소하천 347개소 등 법정하천 389개소의 크고 작은 하천을 지장, 관리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평가서 우수 군 선정

고용률·취업자 등 정량지표·일자리 공모사업 응모도 1위 기록

순창군이 전북도가 추진한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 군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전해성 순창부군수는 지난 20일 전북도청 정부부지사실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표창장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순창군을 비롯해 군산시, 완주군, 고창군 등도 함께하며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전북도는 매년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을 두 그룹으로 나눠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고용지표와 취업 지원 실적, 일자리 창출 노력도 등 총 5개 분야에 21개 지표로 나눠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고용률과 취업자 등 정량지표를 비롯해 중앙 및 도 일자리 공모사업 응모도에서 1위를 기록하며 일자리 창출 분야 우수 군으로 선정됐다.



순창군이 전북도가 추진한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 군에 선정돼 전해성 부군수가 지난 20일 전북도청 정부부지사실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표창장을 받았다.

또 청년 일자리 및 자체 일자리 사업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우수 군에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군은 2017년 평가부터 4년 연속 우수 또는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일자리 분야에서 특출난 성과를 기록하며 도내 우수 시군으로 그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해성 순창부군수는 "이번 우수 군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 5000만원으로 관내 일자리를 확대해 지역 내 청·장년층의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폐회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지난 20일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을 활발한 의정활동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처리했다.

신대용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동안 제시하신 보다 나은 대안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심의를 많은 조례안은 군민과 밀접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파악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군민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

리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견인차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바뀌는 춘분이 지나감에 따라 현안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니만큼 동료 의원께서는 좀 더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한 농가들의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이 전북도로부터 재난특별교부세를 전액 지원받아 열화상카메라를 구입, 35사단과 제6탄약창 부대에 전달했다.

임실군, 열화상카메라 군부대 지원

도 재난특별교부세 전액 지원받아 35사단·탄약창 부대에 22대 전달

임실군이 전북도로부터 재난특별교부세를 전액 지원받아 열화상카메라를 구입, 35사단과 제6탄약창 부대에 전달했다. 군은 전북도로부터 2억원의 재난특별교부세를 받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22대를 구입, 배부 완료했다. 이번에 구입한 열화상 카메라는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제35보병사단 및 6탄약창에 전달했다. 군부대에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됨에 따라 신병 입소식 및 수료식 시 전국 각지에서 많은 가족과 친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부대 특성상,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임실군과 35사단 및 6탄약창이 상생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 방

지에 대한 협업체체가 더욱 견고해졌다. 임실군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외부에서 들어 오는 흑시 모를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래방, PC방,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주말에 타지역민들의 방문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임실버스터미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전북도에서 군부대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예산을 지원해 관내 군부대에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역사회 차단에 35사단, 탄약창 등 군부대와 함께 상생협력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농촌생활 안전사업 적극 추진

농업인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위해 1억6000만원 예산 투입

임실군이 2020년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농부중 예방을 위한 농촌생활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농촌생활 안전사업에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시범, 농촌노인 안전생활 활동지원,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작목별 농작업 위험요인 진단·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 마을 안전생활 환경개선, 농작업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농작업 안전 보호구 보급 등이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관

행적인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및 농업인들의 농작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군은 농촌생활 안전사업을 통해 농업현장 안전관리 실천능력 향상 및 재해 감소,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능력 향상 등을 도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농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생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거점스포츠클럽 2019년 성과 평가 A등급

남원거점스포츠클럽이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한 2019년 성과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남원거점스포츠클럽은 700명이 넘는 회원을 대상으로 엘리트 선수육성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축구, 탁구, 테니스, 복싱 등 4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복싱에서는 청소년 국가대표를 배출하고, 테니스, 탁구, 복싱은 전국·소년체전에서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해 테니스는 단체인 동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원거점스포츠클럽은 지역체육 발전을 위해 엘리트 및 생활체육 종목 운영 외 전지훈련, 지역스포츠클럽과의 교류전 개최, 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역스포츠클럽 역량 강화 지원, 커뮤니티프로그램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장종석 교육체육과장은 "거점스포츠클럽을 통해 엘리트 선수육성의 성과를 거두고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적극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처 확대

남원시는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향상 도모를 위한 생생카드 지원사업 중 카드발급처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25세 이상(결혼자 20세이상) 만7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며, 지원금액은 15만원(자부담 2만원)이다. 남원시는 여성농업인으로부터 생생카드 신청 접수를 받아 확정되는 2,700명(사업비499백만원)은 농협 각 지점에서 자부담 2만원을 납부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총 37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역농협에서도 카드를 발급 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농협중앙회에서 발급에 따른 여성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